

노랑붓꽃(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자생지

노랑붓꽃은(Dwarf woodland Korean iris)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사는 식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이곳(내장산)과 전남 장성, 경북 칠곡에서만 삽니다.

아주 보기 드문 꽃입니다.

이곳에 생태탐방원을 추진하던 중 노랑붓꽃이 발견되어 건물을 논의 끝에 아래쪽으로 옮겨지었습니다.

부드러운 햇빛이 내리는 4월 중순, 한 줄기에서 두 송이 꽃이 수줍게 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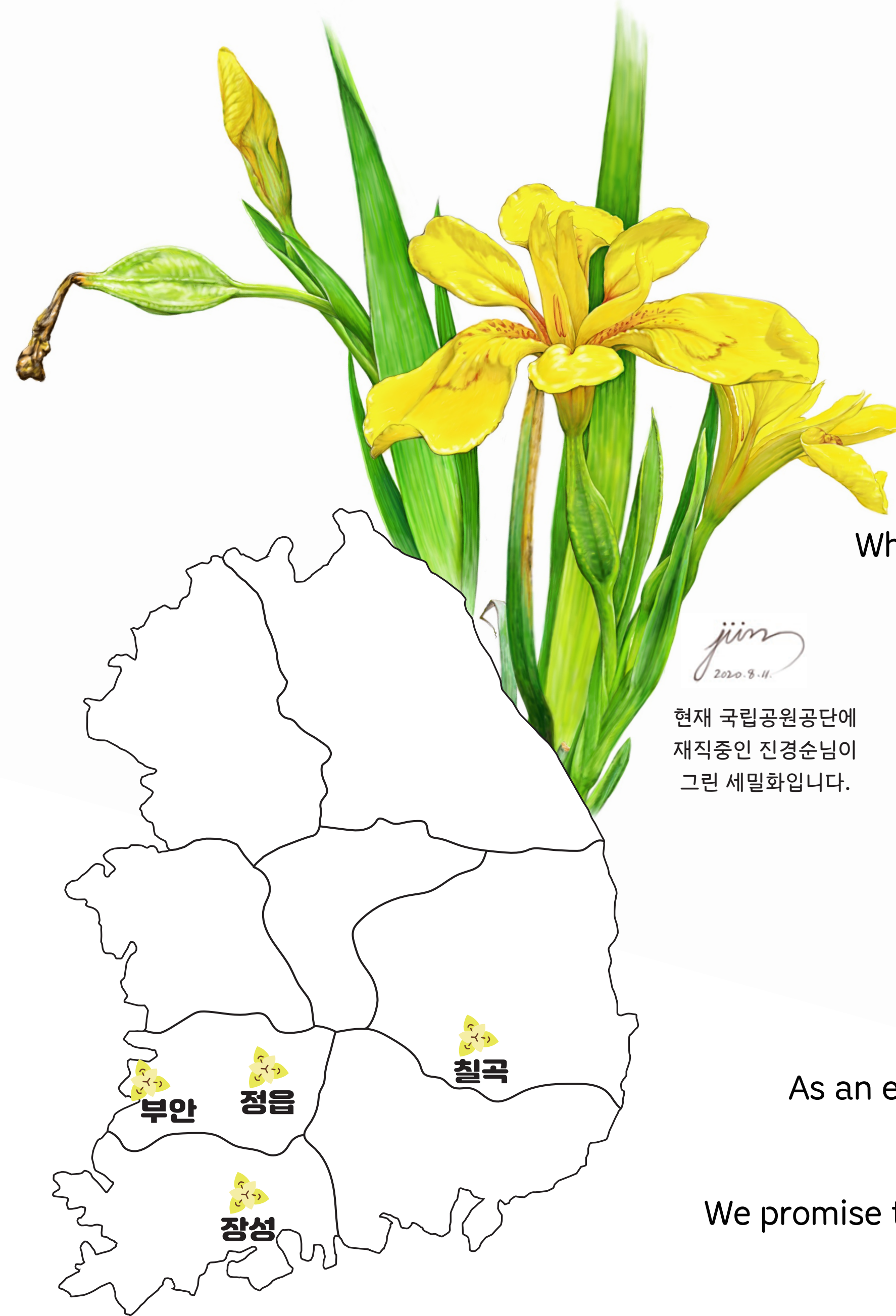
봄바람에 흔들리며 웃는 모습이 아이미소를 닮았습니다.

참 예쁘지요

이 꽃이 이곳에서 사라지면 다시 볼 수 없는 멸종 위기 식물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붓꽃은 내장산 생태탐방원의 마스코트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에 재직중인 진경순님이 그린 세밀화입니다.

The Dwarf woodland Korean iris is a flower that can only be found in Korea.

Although it used to grow all throughout Korea, it can now only be found here (in Naesangsan), as well as Jangseong, Jeollanam-do and Chilgok, Gyeongbuk-do.

It is a very rare flower.

Whil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ure center, Dwarf woodland Korean iris were founded in the area and the location of the building was moved further downward after some discussion.

In mid-April, when the soft sunlight falls, two flowers bloom shyly in a single stream.

While swaying in the spring breeze, the flower's shape resembles a child's smile.

It's very beautiful.

As an endangered plant, if the flower disappears from here, it can never be seen again.

We promise to take good care of the flower so that it will endure.

The Dwarf woodland Korean iris is mascot of the Naesangsan Nature center.

출입금지 (keep out)